

보도분류	브리핑( ) 보도자료 제공( ✓ )
보도일시	<b>2023. 3. 20(월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b>
작성과	운영지원과
담당	과장 권영현, 총무인사팀장 박원우, 담당 김경란(032-453-7132)

## 인천경제청, 김종환 투자유치사업본부장(개방형직위) 임용

- 인천경제자유구역청(IFEZ)은 투자유치사업본부장에 김종환 전 인천경제청 서비스산업유치과장을 임용했다고 20일 밝혔다.
-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은 투자유치 전략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,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,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신임 김 본부장은 성균관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행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으며, 2007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14년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면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은 투자유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.
- 김 본부장은 인천경제청 첨단기업팀장 재직 당시 첨단산업클러스터, 청라 Vehicle클러스터, 영종 Aviation 클러스터라는 지구별 특화전략을 마련하고 미국과 유럽에 대한 IR전략을 강화했다. 또 교보-IBM 데이터센터 유치, 대한항공-보잉사의 항공기 조종사 훈련센터 및 Pratt&Whitney사의 항공 MRO사업, 세계2위 반도체 패키징사업자인 미국 앰코사, 독일 BMW사의 드라이빙레인지 건설사업, 만도 헬라, 만도브로제의 첨단 자동차 부품사업장

유치 등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둔 바 있다.

- 또한 지난 2012년 7월 서비스산업유치과장(4급)으로 임용된 이래 인천글로벌캠퍼스와 송도·청라 국제학교의 정상화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, 뉴욕의 세계적인 패션스쿨인 FIT와 스탠포드대학연구소의 유치를 통한 산학협력 강화, 신세계백화점 및 코스트코 등 유통 물류분야의 선도기업 유치, 한국 최초 복합리조트인 파라다이스시티의 성공적 개장, 인스파이어 및 시저스복합리조트의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인프라 개선, 하나금융타운의 건립 추진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.
- 그동안의 투자유치 경험과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인천경제청의 투자유치 및 현안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김 본부장은 “민선 8기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의 선봉장으로서 인천 경제발전과 IFEZ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